2022년 장애여성공감 연간보고서

**목차**

**발간사**

**장애여성공감 소개**

**활동보고**

- 대표활동

- 법인사무국

- 성폭력상담소

- 숨센터

**연대활동**

- 연대활동

- 연대활동사

**월별 주요활동**

**발간자료 안내**

**재정보고**

**후원회원**

발간사

2022년에 장애여성공감은 내외부적으로 연결되는 운동의 주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탈시설 현장에서 축적되온 고민과 내용들을 반성폭력과 섹슈얼리티, 탈시설 이후의 삶과 문화예술운동, 돌봄현장과 섹슈얼리티, 시설사회와 차별금지법/성과 재생산권리란 주제들로 엮어본 것입니다.

법인 사무국은 탈시설-활동지원-인권상담-장애여성학교에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조직활동의 공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조직활동의 목표를 점검하며 발달장애여성 인권투쟁단 만세팀과 연극팀 춤추는허리의 자조모임 구성원 스스로가 주축이 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활동가 연습은 그 도전의 하나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2-3차 병합심사에 참여하며, 국제연대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진 <탈시설 그리고 성과 재생산권리 연구> 유럽연수에선 탈시설, 돌봄, 섹슈얼리티를 연결하는 문제의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전 지구적 현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센터는 연수 내용을 토대로 IL과 젠더 포럼 라운드테이블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과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를 열었습니다. 탈시설 이후 삶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설사회를 향한 적극적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여성들의 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의미화 하며 힘과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항거불능 조항을 비롯한 장애여성의 성적권리를 가로막는 시설사회 공모체계를 비판함으로써 숨센터의 IL운동 현장과 고민을 연결해갔습니다. 장애인이 상담을 받는 내담자만이 아닌 동료 시민으로 관계 맺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고민하는 활동은 탈시설 이후 중증 장애여성이 지원 대상자로 머물지 않기 위한 제도와 대안을 고민하는 숨센터의 활동과 연결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발달 장애여성 자기옹호활동 독립 공작소와 <나를 찾는 여행>프로젝트틀 통해 지역사회에 있지만 자기 공간과 관계, 자원을 보장받을 권리를 되찾기 위한 힘을 키웠습니다. 아직은 교차하는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단계지만 현장의 경험과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2023년 한 해 더욱 심화하고자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는 정치권과 서울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지하철을 타기 투쟁을 펼쳤습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도 삭발투쟁을 결의하며 왜 이 투쟁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이자 모두의 평등을 위한 운동인지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기후정의동맹 등의 연대활동 등을 장애여성운동의 문제의식과 연결하기는 종종 어렵고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설사회를 비판해온 공감의 문제의식이 자본주의 성장/개발시스템,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가 공모하는 차별의 구조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어떤 차별의 구조를 명확히 바라보며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살피기 위해 분주함을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엔 25주년을 앞두고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운동의 원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는 과정도 녹록치 않지만, 일상관계에서 구체화하여 녹여내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동료로서 연결되며, 의존한다는 의미, 토론하며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가다듬어 외부에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25년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원들도 바뀌고 고민의 무게도 커져가는 같습니다. 운동을 잘 해가고 싶다는 바람이 무거워질 때마다 용기내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2022년 활동을 잘 이어가는 2023년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 정리한 연간보고서 관심있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동대표 이진희,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소개**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1998년에 창립했습니다.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소통하기, 공감하며 연대하기**

사회의 주변부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운동을 배우고, 사회적 차별을 해석하는 힘을 익히고 실천합니다.

**경험을 말하기,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장애여성의 경험을 말하고 표현합니다. 장애여성 관점으로 활동의 지향과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회운동을 펼쳐갑니다.

**정상성에 도전하기, 소수자와 연대하기**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회에 도전합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법인 사무국>**

-조직교육: 극단 춤추는허리, 장애여성학교, 회원 자조모임, 성교육 및 인권교육 활동

-인권상담: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연구정책: 장애여성·섹슈얼리티·IL운동 및 소수자 정치와 관련된 담론과 정책 연구

-장애인활동지원중개사업: 활동지원 연계 및 상담, 활동지원 제도 및 정책대응

-기획사업: 후원, 홍보, 자료발간 및 출판

-행정재정: 법인 전체 행정 재정 총괄

**<부설기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 성폭력피해 통합 상담,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연계, 자기옹호활동, 주변인 교육/상담

-장애여성 성과 재생산권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판례분석 및 연구, 법률 제·개정 운동, 정책 제안

-성폭력 통념에 맞서는 당사자, 주변인 교육 및 홍보: 상담원 양성교육, 장애여성·주변인 대상 성인권교육, 사법·행정기관 등의 모니터링, 인식개선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지적 지원체계 및 관계 확장: 반성폭력·여성·인권·장애운동 단체 등과의 연대, 지역사회 지원체계 간 통합사례회의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젠더적 관점의 독립 및 탈시설 지원 활동: 동료지지 및 독립생활 실천 프로그램,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장애여성 활동가 양성, 자조모임

장애여성 독립생활 의제 연구 및 담론 확장: 독립생활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재구성을 위한 연구, IL과 젠더 토론회 및 세미나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되는 사회변화를 위한 연대 활동

**활동보고**

**대표활동**

이진희 공동대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7기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1]](#footnote-1) 젠더적 관점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역할 제안을 활동의 주된 목표로 삼으며, 3기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았습니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예술 활동현장이 젠더화된 공간임을 폭로했으며, 예술의 특수성이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의 표현으로 인식되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구조의 결과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술위가 성평등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 현장의 예술정책과 관련 지원제도를 성평등 요구에 맞춰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 예술지원 상설 소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3기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예술생태계의 성평등 구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구조 구축의 중요한 이슈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마련이라는 시급성과 함께 본질적인 성차별적 예술 생태계 연구와 성평등 구조의 문제를 토론회 등을 통해 밝혀내려는 노력으로 예술위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 성평등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 단위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 대응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문체부 해당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와 보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하며 필요한 성평등 이슈를 제도권 내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기 예술위 위원회 기간 동안 보조사업 내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성평등지원 소위원회는 공론화된 성폭력 행위와 2차 피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지원 중지, 보조사업 선정 취소 등 예술위 의결을 통한 개별적인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사업 관련 제재 조치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초안으로서 처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핵심사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예술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주요하게 성평등소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성평등한 예술계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예술계와 교육계, 나아가 공공부문에서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예술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여성예술인들의 활동 가치를 공유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생태계를 변화시킬 필요성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진희 공동대표의 예술위원 임기는 종료되었지만, 예술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몫과 역할을 계속 찾아가고자 합니다.

**법인 사무국**

2023년 활동 25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여성공감은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함께 피해 혹은 차별로만 규정된 경험을 나누고 깨지고 부수며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활동가 연습을 통해 발달장애여성이 노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만들고, 조직문화토론을 통한 장애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끈질기게 이어왔습니다. 구어로만 소통하는 사회에서 생각이 혹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견고한 인식 앞에서 도전하고 갈등하고 실패하며 동료적 관계맺기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갔습니다.

**가로질러 13기 장애여성학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고 실패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장애여성학교는 더 많이 더 열심히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일상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19속에서 우리는 <음악반>, <한글반>, <연극반>, <체육반>, <시설사회책읽기반>을 가로지르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한 갈등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소하다고 말하는 경험 또한 말로 이야기 하고 손으로 글을 쓰는 것만이 당연하지 않는 장애여성학교에서 올 한해도 치열하게 분투하며 일상을 바꾸는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조직활동**

노동은 무엇일까요? 활동은 무엇일까요? 예술은 무엇일까요? 법인 사무국은 발달장애여성 활동가연습을 통해 노래하고 회의하고 집회에 나가는 우리의 일상을 활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내딛었습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빛나는 시즌2’를 무대에 올리며 무대 안팎의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쌓아 나갔습니다.

‘탈시설’이 공간과 관계, 나의 삶에서 내가 비로서 주인이어야 함을 조직활동을 통해 그리고 일상의 활동과 무대위 예술활동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갈등하며 발돋움했습니다.

**인권상담**

인권상담은 가족, 연인, 지인, 직장, 학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사소한 혹은 별 것 아닌 일들로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 거부하며, 차별과 폭력의 정의를 새로 쓰며 장애여성의 피해 경험을 개별의 몫이 아닌 사회적 차별의 영향임을 분석하는 과정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아재활원에서 탈시설한 하늘님과 함께 시설 내 약물중독과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공감은 당사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계활동, 탈시설 이후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맺기를 위한 보수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진행되는 종합조사에서 발생하는 등급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여전히 당사자의 필요가 아닌 신체/기능적 한계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22년 한 해는 강동구 구비 확충과 대상확보를 위한 투쟁에 집중하여 강동구의 장애인권리예산 확충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활동**

2022년 공감은 100여건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양성과정, 상담소, 성문화센터, 야학, 노조, 복지관 등등 반성폭력의 현장, 인권과 성교육 현장 등 외부교육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제안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이것은 왜 침해되는지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함께 배웠습니다. 특히 탈시설과 독립 이후 고민되어야 할 관계와 선택의 존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외부교육 : 인권교육 14.7%, 성교육 41.2%, 반성폭력교육 16.7%, 가정폭력교육 8.8%, 기타 18.6%

외부요청 : 공연/출연 6.2%, 기타 8.6%, 수상1.2%, 언론 14.8%, 회의 38.3%, 원고 11%, 토론 19.9%

**연구정책**

인권상담, 성교육, 탈시설 현장의 이슈를 기반으로 보호/능력주의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정의로운 탈시설이 불가능한 탈시설 정책의 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삭제된 성적권리/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며 탄생과 죽음, 성교육, 돌봄, 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선택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구조를 분석하고 논의를 확장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8~9월 <탈시설 그리고 성과 재생산권리 연구> 유럽 해외연수활동을 통해 성적권리의 확장과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더 확장하였습니다. 선행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자기결정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리만이 아닌 조력의 방식과 권한에 대한 고민도 이어 나갔습니다. 향후 장애인독립생활운동에서 탈시설 정책의 문제를 돌봄, 조력, 동료 관계와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활동보고 상담현황**

**전체 상담 현황 (총 76명, 1,010건)**

도표 설명: 전체 상담 현황 상담건수 총 76명, 1,010명

성폭력 상담 967건, 69명, 96% 장애인 54명, 803건, 비장애인 15명, 164건

기타상담 7명, 43건 4% 장애인 6명, 39건, 비장애인 1명, 4건)

**성폭력상담 피해자 유형별 지원 현황 (총 69명, 967건)**

(도표 설명: 성폭력상담 피해자 유형별 지원 현황 총 69명, 967건

강간/유사강간 75.7%, 732건, 강제추행 17.3%, 167건, 카메라등이용촬영 1%, 10건, 통신매체이용음란 1.7%, 16건, 성희롱 4%, 39건, 기타 0.3%, 3건

**성폭력피해자 지원방법 (총 967건)**

(도표 설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총 967건. 대면 (내방, 방문) 20.6%, 199건, 내방 89건, 방문 110건, 전화 70.6%, 110건, 통신매체 8.2%, 79건, 기타 0.6%, 6건)

**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총 967건)**

(도표 설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총 967건. 심리정서 27.6%, 267건, 수사법적 46% 444건, 의료 8.1%, 78건, 기관연계 14.6%, 141건, 정보제공 1.6%, 17건, 기타 2.1%, 20건)

**2022년 상담 주요 이슈 및 경향 분석**

이슈 1. ‘항거불능’과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숨겨진 시설사회 공모체계 강화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명확한 사리판단을 못하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무능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논리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장애 무능을 입증하는 방식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조건은 개인의 열악함이 아닌 장애여성 삶에서의 구조적 성차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적극 해석되어야 하고 권리침해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은 비장애남성・가부장제와 정상신체중심주의가 만든 위계의 해체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사법부는 항거불능과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양 극단의 왜곡과 모순 속에 숨어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연결된 수많은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공모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슈 2. ‘사례 속 지원 대상자’가 아닌 동료시민으로서의 관계맺기 필요성 직면하기

지원자와 피해자의 관계맺기는 갈등, 토론, 제안, 협상 등 매순간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장애에 대한 그 치열한 관계맺음에 뛰어들고 직면해야 하는 것이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관계의 부재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호명되는 수많은 장애여성 피해자들이 기존의 지원제도와 비장애인 중심의 태도와 소통방식에 불화하는 이유다. 장애가 원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장애여성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원 대상으로서의 ‘사례’가 아닌 함께 실패하고 갈등해야 하는 ‘동료시민’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관점의 핵심은 장애를 문제발생 원인이나 취약성으로 지목하지 않고 젠더적 관점으로 이해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통합적 권리보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정의해야 하는지. 통합성을 복합적, 교차적 관점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평등한 동료시민적 관계와 돌봄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질문과 본질적인 토론을 반성폭력 운동현장은 함께 성찰하며 실천해야 한다.

**상담 워크숍**

피해자 - 지원자라는 위치로 인해 상담현장에서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계성, 일방성, 관리적 통제권 등에 대해 성찰하고 활동 안에서 일상적인 긴장감 있는 민주적 소통과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상담활동에 대한 통념, 전문가주의 등 활동가들이 도전 받고 깨지는 시간을 통해 평등, 존중을 기반한 동료관계 및 동료되기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토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여성 자기옹호활동 독립공작소 <나를 찾는 여행>**

20대 지적장애여성이 원하는 사생활과 연애, 일, 독립은 어떤 모습인지 찾아가며 나를 더 알아가며 장애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나와 우리를 옹호해 나갈 반차별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 노랫말에 우리가 바라는 연애를 담았습니다. ‘밤하늘을 함께하며 다정다감한 친구 내가 리드하고 뜨거운 불꽃 같은 연애’ 흥겨운 리듬과 바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도록 앞으로도 공작소 활동은 이어집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숨센터는 소극적인 탈시설 지원 정책에 문제 제기하며, 현재의 탈시설 로드맵이 지역사회 안에서 시설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정의로운 탈시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고민했습니다. 탈시설지원사업으로 중증중복 장애가 있는 당사자들과 몸으로 관계맺기에 대한 실천과 고민을 구체화하였고 시설화 된 관계를 넘어 당사자/지원자/주변인 간 평등한 돌봄 관계를 고민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느끼며 자치구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요구 캠페인**

2023년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 및 예산 보장을 위해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여 권리요구 행진, 정책제안, 점거농성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기간과 본예산수립 시기에 맞추어 투쟁하며 강동구 시민들과 구의원들에게 장애인자립생활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사회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 거리로 나가자**

중증중복장애당사자들과 체험홈이라는 공간에서 나만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간 사생활을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 몸의 속도에 맞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변화되는 몸을 느끼고 당사자-활동지원사-활동가가 존중감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탈시설이 가능한 조건에 대항하며 동료시민으로서의 고민과 작은 실천을 시도하였습니다.

**개별ILP**

물리적 탈시설 이후, 시설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일상의 관계를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형식적인 종합조사표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산정특례 당사자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며 일상에서의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여성과 존중감 있는 상호적인 관계를 모색하며 가족, 활동지원사 등 주변인을 조직하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IL과 젠더 라운드테이블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과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젠더적 관점에서 돌봄과 섹슈얼리티를 연결하는 탈시설운동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보호/능력주의 중심의 지원체계를 비판하며 탈시설 권리와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제도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돌봄/조력관계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몸과 섹슈얼리티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관점과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탈시설과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동료관계를 고민하면서 올해 유럽의 각 현장단체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시설이나 가족이 대리하지 않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섹슈얼리티가 문제행동이 되지 않는 관계는 무엇인지, 탈시설 운동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2022년 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꾸리고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투쟁 방문이 이어져 평등텐트촌에는 평등과 존엄을 바라는 이야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연대와 총력을 기울인 국회투쟁은 침묵하던 제도권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자신들의 책무임을 자임했고, 시민들은 평등법 제정을 민주당의 개혁, 혁신, 쇄신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2022년 국회에는 3개의 법안이(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의되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 안건을 올라갔으며, 법안제1소위 공청회 등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두터웠던 침묵과 회피의 장벽을 넘어 비로소 실체 있는 논의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불평등에 저항하며 평등을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 정치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을 연착시켰고, 차별에 맞서 삭발투쟁과 오체투지를 하였습니다. 각 지역단위에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역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조정하는 역행의 시대에서도 투쟁을 통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의 일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이 남아있습니다. 현정권은 자본과 '효율'을 우선시하며 재활과 복지의 미명하에 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배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장애여성공감도 장애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장애포럼(KDF)

KDF는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촉구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공감은 유럽연수 일정 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2-3차 병합심사에 참관하며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재생산 권리 입법 부재,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투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 장애여성운동 현장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며 시설사회를 지속하려는 정부에 맞서 유엔 CRPD를 근거로 한 정책입법 투쟁에 연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소는 내부/초청세미나, 발간(<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 연구작업(<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보고서>)을 통해 혈연, 이성결혼 중심의 가족규범을 넘어선 시민적 결속으로의 가족구성권을 고민하였습니다. 정상가족 중심의 법제도와 인식이 주거, 노동, 돌봄, 애도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연대와 네트워킹 활동으로 소수자, 페미니즘, 인권의 관점에서 가족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적 유대가 가능한 대안적 사회를 위한 담론을 형성하고 확장 시키고자 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 ‘피해자의 항거불능정도’를 피해자가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 ‘동의 없음’을 기준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대선시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퇴행적 담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갔습니다. 특히 ‘동의’ 기준으로 강간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2021년 유엔특별보고서>를 번역 발간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낭독회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이자 젠더 폭력으로써 강간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문제를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단체 연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젠더 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 및 범시민사회가 연대하였습니다. 4.7 공동행동 <성평등관점의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및 4.16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중적으로 해당 이슈를 알려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개질의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 보장-강화하라!>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전면 백지화 및 성평등 관점을 담은 정부 부처의 역할의 필요 및 역할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논의를 한정하지 않고, 여성가족부가 젠더폭력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실현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후정의동맹

2022년 4월 28일 출범한 기후정의동맹은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투쟁,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에너지 전환 가이드북 발간 및 횡재세 도입촉구 서명운동 및 92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쟁취 집회 등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공동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연결하는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공감은 기후정의동맹 연대 제안을 받고 코로나19, 폭염/폭우 등의 기후 위기와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운동의 과제를 상기하였습니다.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배제되는 몸들을 기후정의운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기후정의선언문을 작성하며 구체적으로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장애여성공감 연대 활동사**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2001년~2005년)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2003년~2005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2004년)

-반차별공동행동(2008년~2010년)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2009년)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 틈새모임(2010년~2011년)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2010년~2021)

-장애인 등 여성폭력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을 위한 연구팀(2011년)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2016년~2022년)

-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위한센터셰어(前성과재생산포럼)(2016년~2021)

-메르스공동대응(2016년~2020)

-HIV/AIDS인권연대나누리+(2016년~2022)

-신아원서울시농성대책기구(2020년~2021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2020년~2022년)

-장애인거주시설‘루디아의집’특별조사단(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前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05년~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2005년~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2006년~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1년~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2012년~현재)

-가족구성권연구소(前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한국장애포럼(KDF)(2012년~현재)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2015년~현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2017년~현재)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19년~현재)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2020년~현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2020년~현재)

-다른세계로 길을 내기 위한 활동가 모임(2021년~현재)

-2세 산재 인정 모임(2021년~현재)

- 기후정의동맹(2022~현재)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2022년~현재)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단체 연대 (2022년~현재)

**월별주요활동**

1.12.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송파구 유세

1.21. 오이도역리프트추락참사 21주기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여행 및 캠페인

2.10. 강동구청 탈시설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긴급지원 보장 면담 투쟁

2.12. 2022년 21차 정기총회

2.17.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진정 기각결정 규탄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일을 여는 극장 in 강동

2.2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대국회 집중유세 <가자, 평등의 나라로!>

3.4. 1차 정기 회원선거모임 <우리도 뽑는다, 대통령!>

3.11. 2022 페미니스트주권자행동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선에 부쳐>

3.23.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즉각제정 촉구 기자회견

3.24.-25. 326전국장애인대회

3.28.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국회 앞 집회 <차별공감, 평등셰어!>

‌3.29. 인권재단사람 코로나19 긴급지원 성과보고회 3부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남긴 질문들 인권활동가가 답하다>

4.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 공동행동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4.8.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4.10.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4.11.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평등텐트촌 & 단식투쟁

4.16.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4.20. 420공투단 20주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집중투쟁결의대회

4.22. <투 유: 당신의 방향> 전시 연계 퍼포먼스 집에 살던 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두번째 쇼케이스 어쩌면 이상한 만남

4.29. 성평등 돌봄 서울! 촉구 기자회견

4.30.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봄바람 문화제

5.13.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미이행 ‘혼쭐’ 페스티벌

5.14.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5.19.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

5.25. 2022년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보장 정책 및 권리예산 요구 기자회견, 13기 장애여성학교 개강식

5.2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텐트촌 단식투쟁 마무리집회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자>, 기획재정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집중결의대회

6.21.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이행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즉각 제정 촉구 결의대회

6.29. 2022 한국 성노동자의 날 집회 <성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싶다! 성노동자 해방행동에서 여성이 잃을 것은 족쇄뿐이다>

‌7.1.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 장례식

7.1.-7.3. 독립공작소 캠프\_불타오르는 독립여행

7.16. 2022 제 23회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성인x전장연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 <우리의 길은 투쟁으로 열어왔다. 함께 평등의 지하철을 타자!>

8.2.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모의재판 피고인 출석요구서 전달 및 지구 끝까지 장애인권리 쟁취 기자회견

8.3.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종합조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8.17.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8.24. 국제장애인당사자 간담회-UN CRPD 기반한 권익 옹호 활동의 중요성과 당사자의 역할

8.24.-2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보고서 심의

8.2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9.16. 장애인 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투쟁 109일차 삭발결의 및 출근선전전

9.22.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집회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9.24. 기후정의행동 행진

9.28.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참여 및 발언,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10.15.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10.21. 2차 회원모임 ‘용산다크투어-오래오래 안전한 땅, 내 집에서 살자! 용산 함께 걸어봐요!’

10.28. 장애인권리예산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투쟁 130일차 삭발결의 및 혜화역 선전전

11.3.~11.7.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 및 권리예산 투쟁

11.10.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헌법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11.12. 2022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백래시의 시대, 페미니즘의 재반격> 세션 6 피해 예방과 범죄화를 넘어 성적권리의 보장을 모색하기 위하여

11.16. 가족구성권연구소x사회복지연구소 물결 북세미나 <가족구성권x물결치다> 2회차 책 시설사회 강제된 관계/장소를 벗어나기

11.17. 13기 장애여성학교 졸업식· 독립공작소 발표회 <가로질러~불타는 독립의 밤>

‌12.1. 2022년 세계장애인의 날 1일차 결의대회

12.2. SHARE 오픈테이블 셰어의 친구들X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접근성 모색>

12.22.-25. 2022년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정기공연 <빛나는>

12.28.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2022년 IL과 젠더 라운드테이블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

**발간자료 안내**

잡지

24호 기획: 시설사회 2021년

25호 기획: 탈시설 그리고 성과 재생산권리 2022년

자료집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자료집 2021년

IL과 젠더포럼 「탈시설 이후 자기결정권, 돌봄,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기」자료집 2022년

춤추는허리 기록집 장애여성 예술로 배우다 <장애여성 배우 몸 쓰기> 2022년

공연

춤추는허리 정기공연 <빛나는> 2022년

**재정보고**

|  |  |  |
| --- | --- | --- |
| **2022년 세입 결산서** | | (단위:천원) |
| **구분** | **계** | **비율(%)** |
| **총계** | **3,909,635** | **100%** |
| 후원수입 | 101,671 | 2.6% |
| 회원수입 | 424 | 0% |
| 사업수입 | 40,316 | 1% |
| 보조금수입 | 3,045,867 | 77.9% |
| 기금공모수입 | 147,412 | 3.8% |
| 과년도 수입 | 58,262 | 1.5% |
| 법인전입금 | 9,925 | 0.3% |
| 기타예금이자수입 | 305 | 0% |
| 기타잡수입 | 68,733 | 1.7% |
| 전년도이월금 | 436,720 | 11.2% |

|  |  |  |
| --- | --- | --- |
| **2022년 세출 결산서** | | (단위:천원) |
| 구분 | **계** | **비율(%)** |
| **총계** | **3,909,635** | **100%** |
| 인건비 | 755,518 | 19.3% |
| 사무운영비 | 277,633 | 7.1% |
| 교통비 | 11,994 | 0.3% |
| 의료비 | 6,000 | 0.2% |
| 재산조성비 | 3,507 | 0.1% |
| 사업비 | 2,264,482 | 57.9% |
| 법인전출금 | 9,925 | 0.2% |
| 부채상환금 | 40,000 | 1% |
| 과년도지출 | 197,882 | 5.1% |
| 잡지출 | 404 | 0% |
| 반환금 | 18,192 | 0.5% |
| 이월금 | 324,098 | 8.3% |

**후원회원**

Delort Clara Sophia Candice Megan Alana Green Suhyeong Jo 강동우 강미량 강민형 강소영 강솔비 강윤정 강은지 강은혜 강일화 강지니 강지은 강진경 강진영 강필재 강현신 강혜영 강혜정 강희문 경민선 고경난 고경순 고나영 고상흥 고은비 고재범 고주영 공진하 곽동혜 곽민영 곽성자 구낙회 구은정 권민선 권민우 권성열 권세정 권순부 권영은 권예현 권인숙 권지숙 권혜지 권혜진 권혜진 김가인 김경리 김광호 김권태 김나리 김난슬 김남중 김다정 김다형 김담희 김대미 김대현 김대환 김덕녀 김동은 김두나 김명숙 김명신 김무늬 김미선 김미순 김미순 김미연 김미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경 김민기 김민솔 김민수 김민지 김민지 김보라 김보명 김보연 김분순 김상순 김선 김선철 김선혜 김선화 김설희 김성은 김세림 김소원 김수경 김수완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순남 김신아 김양요 김연주 김영나 김영숙 김영옥 김영주 김예영 김예원 김원우 김유란 김유혜 김윤영 김은정 김이오 김인순 김재왕 김정현 김정혜 김종웅 김주광 김주희 김준우 김준일 김지연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진선 김진수 김진아 김진희 김창연 김채은 김초엽 김하늘 김하늬 김하얀 김하은 김한나 김한솔 김한올 김현숙 김현우 김현철 김형철 김혜경 김혜경 김혜민 김혜정 김혜지 김혜진 김호정 김호진 김홍점 김화숙 김화용 김효진 김효진 김휘연 김희연 김희영 김희지 김희진 나경아 나영정 남궁우연 남소정 남혜민 노다혜 노선이 노선주 노은경 대용 레고 류혜영 류호정 류후남 류희정 림보 맹남주 명혜진 모희정 목소희 문미현 문민기 문수연 문예원 문혜정 민경환 민지희 민혜리 박경석 박규자 박규홍 박동성 박미정 박미주 박민아 박봉정숙 박상희 박서연 박성후 박세희 박수빈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수현 박슬기 박아름 박영 박예지 박유빈 박은선 박은영 박은주 박은지 박익한 박재련 박재완 박정옥 박정원 박종주 박주영 박준의 박지성 박지연 박지혜 박찬옥 박한희 박해연 박혜정 박효선 박훈상 방수연 방이슬 방일숙 방종식 배무근 배민주 배복주 배성 배성은 배손용 배용근 배의혜 백경랑 백소민 백시화 백영경 백지은 변미혜 변은희 변종석 변지은 변지혜 서민자 서보김수경 서석우 서정희 서지원 서찬석 성선애 성정은 성지민 소라미 소은영 소현숙 손선희 손송이 손한숙 송경은 송시규 송영욱 송유진 송은지 송은진 송현민 송현우 송희 신민경 신선희 신영근 신유나 신평운 신한나 신한나 신혜숙 신혜정 신희숙 심미숙 심희정 안기주 안선민 안인선 안준희 안형진 안효선 양근애 양민진 양소연 양애리아 양진선 양현경 엄윤주 엄혜경 에대표 여소연 염운옥 오승미 오은교 오정진 오지현 오창우 오혜진 오희진 우광제 우성찬 우아영 우지연 우진아 우혜정 우효상 원예은 유가을 유복재 유성애 유성원 유의선 유일다 유진민 유진아 유창림 유화정 윤경진 윤다혜 윤명식 윤선영 윤수종 윤승민 윤영오 윤일희 윤정아 윤정원 윤혜정 윤효정 윤효정 이가원 이경님 이경님 이경아 이경옥 이규만 이길보라 이다혜 이덕현 이도경 이도연 이동준 이미경 이미정 이민정 이보은 이산하 이상훈 이서연 이선형 이세용 이소영 이수아 이수진 이수현 이순신 이슬기 이슬하 이승한 이시자와신지 이신애 이심지 이어진 이여경 이영란&이한결 이영미 이영숙 이예지 이우정 이원재 이원형 이유나 이유림 이유정 이윤지 이율리 이은숙 이은정 이은지 이장훈 이재은 이정심 이종수 이주영 이주영 이지숙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진(신지민) 이진희 이채미 이초자 이한나 이한솔 이해석 이현숙 이현정 이형주 이화경 이효정 임건호 임다솜 임덕근 임보라 임상미 임석호 임성종 임수민 임오주 임은화 임지우 임채은 장경애 장다혜 장미현 장소령 장여진 장유은 장은지 장은희 장현진 장혜령 전선주 전선행 전예지 전은순 전재우 전지현 전한솔 전혜정 전혜정 정구연 정민영 정민주 정민형 정보라 정상규 정수미 정승현 정영란 정영옥 정용준 정우준 정원화 정은경 정은아 정은정 정은희 정의로 정일선 정주희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현수 정혜경 정혜민 정희은 제갈승 조경미 조길래 조남웅 조덕원 조미경 조민아 조서연 조성호 조성희 조아문 조영호 조윤 조은경 조은솔 조하늘 조한나 조현 조혜인 주선하 주연진 주우미 지은숙 진선미 진성선 진은선 짝꿍TV 차소영 천송연 최나눔 최나은 최란 최민서 최벼리 최성미 최성화 최수진 최예훈 최용은 최우정 최월향 최윤 최은영 최정숙 최춘자 최하영 최한별 최해실 최현정 최혜미 최호림 추경미 추대엽 추은지 추주희 추지현 페핀 표소희 표지원 한낱 한미경 한선하 한예선 한재형 함상령 허달진 허연숙 허연희 허윤영 허지선 현유선 홍경희 홍승희 홍주은 홍지수 홍찬숙 황다솔 황석하 황소연 황수연 황주연 황지성 황지영 황채린 황한나 희음

\*정기/일시후원 포함

1.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진희공동대표의 경우 개정 전 위촉되었으므로 이전 법률에 의해 임기 2년으로 2022년 5월 말 임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8기 미선임으로 22년 12월말 종료 [↑](#footnote-ref-1)